



문주의 벗 들

상섭(相涉)은 참으로 좋은 술동무였고, 당시 근 1년 동안의 동거 생활은 나의 반생 중에도 한 즐거운 추억이다. 그대 우리들의 주량은 백중(伯仲)을 다투리 만큼 거량이어서 날마다 필수량이 거창했으나, 둘의 포켓은 자못소설(囊弱)하였다. 그런데 혹시 돈이 생기면 술턱을 내는 품이 두 사람이 아주 각기 달랐다. 나는 학비로 고료가 오면 그 중에서 먼저 방세를 치르고 그 나머지 액수를 그에게 고백하고 돌아 나가 마시는데, 상섭은 그렇지 않아 고료만 오면 시치미를 떼고 왔다는 말도, 액수도 일절 말하지 않았다. 내가 벌써 그 눈치를 알고, 내 돈 약간을 보이면서

값싼 술집으로 가져간다. 그가 못 이기는 체하면서 나를 따라 나선다. 주밀(周密)한 그가 고료로 온 전액을 그의 조끼 안주머니 최심부(最深部)에 감추었음은 물론이다.

그래서 나의 값싼 술턱으로 둘이 다 우선 거나하게 취한다. 나는 그만 돈이 벌써 떨어졌음을 그에게 고하고, 일어서 돌아가자고 그의 소매를 잡아당긴다. 자, 예서부터가 나의 작전의 승리이다. “자, 상섭형, 가!” “못 가! 다른 데 가서 더 먹어!” “돈이 없는데...” “아따, 없긴? 히히히, 예 있어. 이것 봐, 일금 대매(大枚) 30원 약(藥)라.” 이리하여 최심부에 비장되었던 대

아아, 어여쁜 그 치기(稚氣),
우리들 주당의 난만했던 우정이어...

매 30원은 대번에 일약 최전선으로 출동된다. 30원 이면 그때 한달 숙식비가 넉넉한 돈이다. 그래 두 사람은 이번엔 고급한 바이로, 카페로 발전하여 권커니 작(權)커니 일(日)·양주를 거둬하여 드디어 그 대매 전액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고 만다! 나는 먼저 여간한 턱을 내고 뒤에 인색함에 반하여 상섭은 처음엔 전주(全州) 쪼뽀기 이상 군다가도 몇 잔 술에 거나하기만 하면 뒷일은 삼수 갑산 아랑곳 없이 있는 돈을 모조리 다 털어 끝장을 내고야 마는 성미다. 내가 그 성격을 익히 알고 꾸미는 작전에 그늘 속아서, 교료는 나보다 갑절을 별건만 포켓은 언제나 텅 비었다.

언젠가는 나의 그 작전이 지대한 효과를 발휘하여 둘이 <본향(本鄉)바야>엔가를 가서 '백주회(白酒會)'를 열었다. 하룻밤에 정종·다까라·왜소주·각종 맥

주·황주·배갈·오가피주·벨무드·리큐르·차츰진·위스키·브랜드·위카 등등에 미쳐 백가지 술을 모조리 한잔씩 먹는 회다.

만취하여 돌아오는 길에는 또 예의 상섭의 지벽(持鞭)인 습바꼭질이 시작된다. 그가 그야말로 <횡보(橫步)>지자보 비틀걸음으로, 그러나 용하게 빠른 걸음으로, 앞서 뛰어가 어느 길가 쓰레기통 뒤에 몸을 숨긴다. 내가 달려가 찾다가 알고도 짐짓 모르는 체하고 지나가면, 통 뒤에서 그가 나와, "개꼬! 요기 있는 걸 몰라? 히히히." 이런 일을 되풀이하면서 둘은 마침내 다정한 동지로서 스크램을 겪고 반린취보(蹣跚醉步), 안 맞는 발걸음을 굳이 맞추어 하숙 문을 두드린다. 아아, 어여쁜 그 치기(稚氣), 우리들 주당의 난만했던 우정이어...

밤의 허행

어느 밤이고 돌아오는 길은 이상스럽게도 마음이 허전해진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만 가지고서 마음 한구석이 쓸쓸한 것 같다. 그러나 기어이 나는 무슨 큰 볼 일이거나 있는 사람처럼 밤거리를 쏘다니다 늦게야 집에 가 쓰러지고 만다. 이러면서도 석양부터 나는 밤을 맞이하노라 가슴이 설레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모두 모르는 사람 같고, 반갑게 인사를 해야 할 사람도 뜻밖에 정이 벗어나 외면을 해 버리고 어디로 탈주하고만 싶고...

'아아 큰일났다.' 하면서도 나는 밤마다 밤거리를 산책하다 피곤하면 지쳐 비틀거린다. 그러나 밤은 역시 고독의 허행자(虛行者)에겐 즐거운 시간이요, 또한 공간이다. 되도록 혼자서 으스스한 뒷골목 술집을 찾아 들어가 술을 마시며 멍하니 앉아 있는 버릇이 3년 전부터 생겼다. 아는 사람을 만나 잔을 나눈대야 신경 쓰기에 모만 달고, 헤어져 돌아오는 길은 더욱더 허전해서 되도록이면 혼자 밤을 즐기기로 한 것이다. 모르는 사람들 속에 끼여앉아 몇 잔 못하는 술이나 마시며, 취경(醉境)에 이르면 거리로 나와 흥얼거리며 돌아다니는 것이다.

밤거리의 맛이란 그것이 오랜 세월에 때문에 그 정

서가 하나의 음률을 지니면 지닐수록 밤거리는 무서운 마창(魔窗)을 풍기어 주는 것이다.

이래서 고독에 지친 사람이나 고독에 주린 사람에게겐 밤거리나 밤의 술집이란 그지없이 허무와 적막의 거리를 허행시키고야 마는가 보다. 티져나갈듯한 밤의 술집, 그것이 찬바람 부는 밤이면 더 한층 따스한 체온을 갖게하고, 다방 또한 그렇고, 온갖 소음 또한 정이 든다. 그것이 정든 집이 아니든, 아는 사람들이 아니든, 밤이어서 밤거리에서 실낱 같은 한 줄기 서민의 정취가 발을 멈추게 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홀로 밤 길도록 이집저집 드나들다 돌아가는 것이다.

허행의 비애에 잠겨 나도 모를 길을 걸어가는 습성에서, 대단치 않으나 자신을 자위하고야 만다. 그러나 서울의 종로나 명동은 뒷거리와 뒷골목이 없어져 버려 무슨 실연의 거리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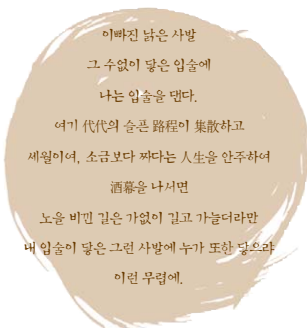
뒷거리와 뒷골목은 없이 전면에만 옹기종기 서 있는 건물들이 개척지의 가건물인 것 같아 정 대신 서글피지기만 한다. 역시 종로와 명동의 밤은 뒷거리와 뒷골목이 있어야만 그 정서가 서민의 뜨거운 입술과 더불어 꽃이 피고 추억이 마련되는 것인데, 텅빈 공지에 빨래가 바람에 펄럭이고 귀를 찢는 듯한 차의

소음이 무슨 비명인 것 같아 소스라쳐 달음질 치게 한다. 오랜 세월을 뒷거리, 뒷골목에서 늙어온 노인 들도 볼 수 없고, 가게와 술집도 없다. 자꾸 하나 둘 씩 허행 속에 늙어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 생각할 제 어느 으스스한 뒷골목을 찾아가 독한 술 속에 고독 을 담고 소리를 지르고만 싶어진다. 그러나 나는 이런대로 종로와 명동의 밤을 즐기고 밤거리를 허행 하는 것이다. 되도록이면 아는 사람을 멀리한 밤거리 리와 밤 골목을, 외로움에 지치고 외로움에 주려서 나는 걸어가는 것이다. 아는 사람에 주렸던 내가 환 도(還都)바람으로 아는 사람에 지치고, 이로 인해 살벌 해진 주위와 분위기에서 나는 탈출을 하려는데 애를 쓰고, 공막(空幕)한 지대에서 홀로 나 자신을 보살피려 는 데서 밤의 허행을 하고있다. 이런 밤거리엔 난데 없이 서커스가 종로 한복판에 포장을 치고 예수 서 린 나팔을 불어대기도 하는 밤이 있다.

이런 곳에 곡마단이란 무슨 동화나 꿈속 같아 눈을 비벼보기도 하나 역시 생시의 표현이다. 부서지고 허물어져 캄캄한 골목에서 아이들이 나팔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모두가 무섭도록 쓸쓸 한 허행자들인 것만 같다. 발을 멈추고 문득 나는 온 갖 재물을 다 부리는 약사들을 바라보며 <도미에>의 그림을 생각한다. 모두가 허무를 보고 흥얼거리는 것만 같다.

이 허무와 고독의 밤거리에서 나는 어쩔 수 없도록 치미는 외로움에 못 견디어 아무데고 술집을 찾아 뛰어들어가 술한 허행자의 입술과 침이 닿아 두터워

진 술잔에 술을 따라 마시어 보는 것이다. 이래서 또 밤과 서울의 밤거리가 나는 무섭도록 외롭고 서러우 면서도 정이 들어 잊을 수 없다.



다정한 벗 김용호(金容浩)의 노래 한 구절이 내 입에서 절로 나오게 하는 밤도 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아니 영원히 내가 종생(終生)하는 날 까지 서울의 밤, 명동의 밤거리를 나는 허행만 하다가 쓰러질 것만 같다.

프랑스스 잠의 밤노래도, 니체의 밤노래도 나에겐 마음의 부채만 되게 하는 것 같아 밤거리를 쓰다니 게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